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된다.

(행2:45)

부제 : 금성교인,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들 (마5:3-12)

신앙지침

1. 역동적인 예배
2. 뜨거운 기도
3. 열정적인 전도
4. 풍성한 나눔
5. 양세대 양육

[2015년 2월 8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계 2:1-7

제목 :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2)”

말씀 : 에베소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계2:1-3)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거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월의 묵회 주제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주제를 생각할 때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국가>로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즈음 세상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지탄을 받는 아픈 현실을 직시하면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때 그 사회와 국가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도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 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교회를 비난하기 전에, 남의 신앙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회생활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제의 첫 출발이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의 의미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된 자료를 찾았습니다. **유영만씨가 지은 <청춘경영>이라는 책입니다**. 아름다움을 4가지로 설명 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만 인용합니다.

첫째로 “아름다움”은 “**앎+다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육체적, 경제적, 영적 등등의 문제로 심하게 앓는 동안 터득한 내적 깨달음이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진주조개가 모래를 먹은 후에 속에서 하얀 속앎이를 한 다음에(앎+다움) 아름다운 진주가 생겨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한자 아름다울 美(미)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름다울 美(미)는 羊(양)+犬(대)의 합성어입니다. 美(미)라는 글자는 처음에 새끼 양이 아닌 큰 양을 뜻하였으나, 차츰 양이 크게 자라나는 모양을 보는 주인의 호뜻한 마음을 아름다다-아름다움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움”은 “**알다(知)**”라는 동사 어간에 “**음**”이라는 명사형 접미사가 붙어서 “**알다-아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알 때 아름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름다움의 반대말은 추함이 아니라 “**모름다움**”이고 통상 쓰는 말뜻으로 하면,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유명만 씨가 해석한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움 美(미)라는 글자는 양이 크게 자라나는 모양을 보는 주인의 흐뭇한 마음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움은 “알다(知)”라는 동사에서 풀이하여서 잘 아는 게 아름다움이라는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추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아름다운 교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을 한 곳이 바로 계시록 2-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하신 말씀이기에 **교회생활을 잘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이 7교회를 살피면 아름다운 교회생활에 대하여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오른손에 일곱별을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권세 있는 손입니다. 힘이 있는 손입니다. <붙잡다>는 뜻은 <지지하다. 움켜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재분사 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의 사자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권세 있게 붙잡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했습니다. 일곱 금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거니신다>는 의미는 <거닐다. 분주하게 다니다>란 의미입니다. **현재분사 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분주하게 다니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 사이를 바빠 다니시면서 간섭하시고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성도들을 위해 활동하십니다. 특히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예배 순서 순서마다 잘 참여를 하셔야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에베소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변화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여신을 비롯한

각종 우상숭배와 황제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곳에 사도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자들이 장사가 안 되니 조직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소요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마술에 사용하던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일로 신앙이 힘을 얻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에베소교회입니다. 주후 52년경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교회는 이처럼 바울이 터를 닦은 뒤, 디모데와 사도요한이 목회했던 곳이었습니다. 두란노서원에서 바울이 강론했던 곳이 에베소였고 성경학자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쳤던 곳도 에베소였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회했던 곳도 에베소였습니다(행 18:26).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역사와 전통이 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에베소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주님은 에베소교회에 대하여 4가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첫째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행위는 믿음의 활동입니다. 우상을 버린 믿음의 행동을 말합니다.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코피를 쏟을 정도로 일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감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에 못지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알고>라고 하셨습니다. **안다는 단어는 <직관적으로 안다.>는 단어의 강조형입니다. 주님은 신적인 통찰력으로 한 번에 척보면 다 압니다.** “에베소교인들아 그렇게 힘들게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확실히 안다.” 강조형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열심히 일하는지 인내하는지 척보면 압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 네가 믿음을 지키면서 얼마나 수고 하는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다리

가 아프면서 충성하는 지, 네가 교사로 봉사하면서 얼마나 수고 하는 지, 주차장에서 말없이 봉사하면서 오해도 받으면서 힘 드는지, 구역을 맡아서 섬기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네 남편도 아내도 학생도 성도도 심지어 목회자도 몰라줄 때가 있지? 그러나 나는 한 눈을 보면 다 안다.”

둘째로 주님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했습니다. 여기서 쓰인 **악한 자들**이란 **율법이나 도덕성이 결여된 자들**을 말합니다. 특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당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니콜라가 주장하는 바를 따라가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입니다. <니콜라>란 단어는 <백성을 삼키다>란 의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발람이나 이세벨은 다 백성을 삼킨 자들입니다.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특징은 **백성들을 교묘하게 꺾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을 하게 합니다.**

왜 이런 주장이 먹혀 들어갑니까? **초대교회에 영지주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원론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는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정신과 영의 세계)는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교묘하게 타락하게 했습니다. 육신은 악하니 육신으로 짓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성적으로 음행하게**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매우 어지럽혔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 자가 <니콜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니콜라>의 주장을 따르는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에베소교회는 이런 무리들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했다는 원 의미는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은 hate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에 빠져 있는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출교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잘 지킨 것을 주님은 칭찬**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순결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세속적인 세대에 물들지 말고 스스로 순결과 거룩함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에베소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잘 가려내는 분별**

력이 있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잘 견디면서(인내하면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종을 책망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부지런하게 하셔야 합니다. **주일을 잘 지키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교회학교 시간에 왜 출석을 못하느냐 하고 물으니 부모가 늦게 일어나 그 시간에 참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게으르면 아이들도 게을러집니다.

정말 주일을 잘 지키시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미리 미리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와이셔츠도 미리 미리 토요일 저녁에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책도 미리 미리 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옷도 잘 손질해 두어야 합니다. 헌금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늦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준비하면 부산해집니다. 어수선 해집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에 쫓기고 설거지도 못하고 방도 어지럽게 만들게 됩니다. 만약 주님이 그 때 여러분 집으로 오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준비 없이 부산하게 주일날 오면 예배가 영적으로 잘 드러질까요?

한 주일학교 아이는 토요일 잠잘 때 머리맡에 주일 입고 갈 옷, 성경책, 가방을 다 준비해 놓고 잡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 늦는 일이 없습니다. 늘 기쁘게 옵니다. 그 아이는 교회학교에서 모범학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교회 교인들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후에 **주님은 에베소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원문의 뜻은 **너희를 반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반대해서 말을 합니까? **그이유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교회는 **수고와 인내와 부지런함으로 인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책망**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우리가 믿는 삼

위일체의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전 13장3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에베소교회는 외면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면에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사랑을 상실했습니다.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감동이 사라져 버리고 거저 사도들을 분별하다 보니 쓸데없는 교만이 들어와서 콧대만 높아지고 처음 믿을 때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봉사와 일을 하지만 첫사랑의 감격 없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것을 잘 했어도 이 첫 사랑을 잃었기에 책망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그 책망이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슬픈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배신당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세월이 흘러갈수록 연애했을 때의 낭만이 사라집니다. 처음 사랑의 감격이 시들어가기에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권태기가 옵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은 부부일수록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행복합니다.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5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첫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째로,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하라>는 단어는 <되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재명령형입니다. 계속과 반복의 의미입니다. 한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이 언제 떨어졌는가 (추락했는가)를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렀는데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원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집사였을 때에는 참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혹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

로가 되고, 혹 목사가 되고나서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살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떨어진 것은 아닌지요? 첫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곰곰이 비디오테이프를 되돌려보는 것처럼 되돌아보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정과거형입니다. 즉각적인 단 번의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다시는 그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형식만 남았는지 가슴을 치면서 철저히 통회하며 회개하라고 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처음 믿었을 때의 그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앞에서 회개한 결과가 즉각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처음 행위를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찾길 바랍니다. 더 뜨겁게 전도하라는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에베소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참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 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 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이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분들은 즉각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하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심판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교회성도들이 늘 첫사랑을 잃지 않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경고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